2021년도 표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시 73:28)	NEW **순복음Life** 제58호	발행일 : 2021.02.07. 발행인 : 한승권 목사 위원장 : 김미진 집사 발행처 : 문서위원회

2021년은 새로운 환경이 주어졌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넘치는 은혜 받는 2021년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달의 간증>

정소진 권찰

할렐루야~
우리교회에 살~짝 노처녀 정소진 권찰입니다.
예전에 무엇이 이루어지기만 하면 간증을 꼭 쓰겠다고 문서위원회에 약속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그 무엇이 이루어져서 쓸 수 있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몇 년간 주님께 같은 기도에 제목을 가지고 간구한 기도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기도가 열매를 맺었음에 이렇게 성도 여러분에게 저에 이야기를 풀어 놓고자 합니다. 맞습니다!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소식을 들려드릴 수 있음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임을 다시 한번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서른 살이 지나면서 전 결혼으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있었거든요. 주변에선 그냥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보시는 '결혼은 언제 할 거야?' '남자친구 있으면 더 늦기 전에 빨리 해'라는 말들 때문에 마음적으로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결혼의 ㄱ자만 나와도 자리를 피했고 얼굴이 굳어지곤 했었습니다. 교회에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뻐도 마음껏 안아주지도 못했어요. 왜냐면 성도님들께서 아기를 안고 있거나 예뻐하고 있으면 '예뻐? 너도 언능 결혼해서 아기 낳아' 이런 말씀들을 하시기 때문에요. 그럴때마다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마음에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정말 듣기 싫은 말 중 단연 첫 번째가 결혼 이야기였다니까요~ 그러다 생각을 바꾸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요. 목사님 설교 말씀 중에 '입술로 선포하라'였습니다. 그동안 제게 결혼이란 단어는 금기어였는데 '이제는 내가 먼저 선포하자' 로 마음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바꾸고 나니 주변에서 '결혼 안 해?' 물어 오시면 '네~ 곧 할려고요' 라고 웃으며 이야기할 수 있게도 되었었습니다. 또 재작년 철야 기도회 찬양 인도를 하게 되었을 때는 '저 내년에 결혼 할려고요' 라는 말을 자주 입술로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곤 하나님께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는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가장 적당한 날에 제 생각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결혼할 수 있는 상황과 여건과 그에 따르는 물질에 이르기까지 모두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는 다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라는 기도를 꾸준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작년 초 친구의 소개를 통하여 좋은 사람을 만나서 연애를 시작했지요.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제가 코로나로 인한 실직자가 되었고.... 그래서 결혼은 내년 후나 되겠구나~ 생각하게 되었어요. 다행히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서 저질 체력인 몸의 회복을 위해 운동도 매일 다니고 급격히 불어난 체중을 감량하며 체력도 점차 회복하면서 백수의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실상은 돈 받으며 즐겼던 시간이었지요. 11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그때까지 놀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제 계획을 틀으시고 9월에 취업을 하게 하셨습니다. 좀 더 놀고 싶었는데... 언제 또 취업자리가 나올지도 몰랐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일수도 있을 것 같아 순종하는 마음으로 직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간의 긴 직장생활로 지친 저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꿀같은 휴식을 하고 또 다시 직장에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지내다가 어른들께서 상견례 이야기를 꺼내셨구요. 저희들은 바로 11월에 양가 어른들을 모시고 상견례를 하였답니다. 둘 다 나이가 찼고 언제까지 기다릴 수도 없는 입장들이라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더 끌지 말고 식 올리자는 어른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급하게 3월 6일로 예식 날 잡고 식장 예약하면서 본격적인 결혼준비가 시작되었지요. 제 연말과 연초는 그 어느 때보다 바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결혼 준비하면서 '아~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구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몇 달간 쉬게 하셔서 육체를 강건케 해주셨구요.....준비에 들어가는 돈은 그동안 모은 돈과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이 있었는데 이것은 부모님께 도움받지 않고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퇴직하게 하신 것이구요..... 평생 백수로 살 수는 없으니 결혼 준비할 때 쯤엔 취업을 할 수 있게 하셨구요.... 취업한 병원은 혼자 일하지만 이전에 다니던 병원보단 바쁘지 않아서 결혼준비 수월하게 할 수 있게 하셨구요.....이 모든 일들을 미리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조금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추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계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결혼 생활이나 임신이나 모든 전반적인 것들도 지금처럼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지길 기도하며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언제 아기가 생길까 궁금하여도 묻지 마시고 조금만 참아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때니까요~ 저도 몰라요.ㅋㅋ 저는 앞으로도 꾸준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성도로 살아가겠습니다. 2021년은 새로운 환경이 주어졌지만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넘치는 은혜 받는 2021년이 되시길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성

Exit

성도알아가기

최선자 집사님

1. 고향은 어디세요?

중국 흥룡강성입니다.

2. 신앙생활은 언제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1989년 3월 어느 마을에 갔었는데 그 마을에서 열리는 모임에서 말씀을 처음 들었어요.

3. 중국에서의 삶은 어떠셨어요?

좋았지요. 집이 내 집이고, 땅도 있고요. 딸들이 한국에서 보내주는 생활비로 생활했어요. 딸아이들이 착해서 늘 제 말에 귀 기울여 주었어요. 그리고 제 손으로 키운 손자들도 건강하게 잘 자라 주었어요.

영적으로도 저를 따라 예수님을 잘 믿었으니 더할나위 없었어요.

4. 한국으로 이주해 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녀들을 따라서 오게 되었어요.

5. 본국에서와 이곳에서의 신앙생활에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나에게 자유스러운 시간이 많이 주어졌습니다.

6. 작년에 성경 5독을 하셨는데요. 그 비결은 무엇인가요?

감사하신 하나님께서 제게 건강과 시간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7. 자녀들과 함께 살고 계시는데요. 좋은 점과 덜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해 주세요.

자녀들이 착하니 있기가 편하고 따로 있던 식구가 함께 있게 되니 서로 많이 양보하며 살고 있습니다.

8. 집사님을 꽃으로 비유한다면 무슨 꽃일까요?

꽃을 좋아는 하지만 내하고는 연결해서 한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할미꽃 ...)

9. 특별히 사랑하는 손주 영광이에게 팽생 삶의 지팡이가 될 조언 내지는 덕담 부탁드려요.

어떤 때 어느 곳이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먼저 생각하라.

10. 요즘 집사님의 간구하는 기도제목은 무엇인가요?

열심히 전도할 수 있도록 전도 대상을 붙여 달라고 기도해요.

11. 자신의 믿음 생활을 돌아볼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이건 정말 잘했다 라고 칭찬해 줄 만한 부분은 어떤 모습인가요?
우리 마을에서 그리고 우리 집에서 제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것이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복음의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12. 칠십평생 살아오시면서 주님, 그 이름만을 붙들어야만 했던 힘들고 어려웠던 적은 언제 였나요?
중국에서는 핍박이 참 많았어요. 그때마다 기도했지요.

13.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시는 집사님만의 비결이 궁금해요.
지금의 저의 체격이 제일 보기 좋지요. 전에는 허약했어요.

14. 한국말 중에 가장 알아듣기 어려웠던 단어는 무엇인가요?
영어를 섞어서 하는 말을 전혀 못 알아 들어요.

15. 제일 입에 안 맞는 한국음식, 그리고 제일 그리운 중국 음식 말씀해 주세요.
음식은 많은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곳에서 늘상 담아 먹던 김치가 생각나네요.

16. 지금도 도전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말씀 쓰고' 이것이 나의 재산과도 같아요.

17. 저희 교회에는 여러 가지 부서들이 많이 있고 곳곳에서 성도님들이 사역을 하고 계신데요. 30년만 젊었다면 하고 싶은 주님의 일은 무엇인가요?
부르시는대로 순종 할 준비하고 기다릴 것입니다.

18. 아직까지도 순종하지 못하는 말씀이 있으신지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19. 최선자 그 이름으로 삼행시 부탁드려요.
최 - 최선으로
선 - 선하게 하나님의
자 - 자녀답게 살자.

감사릴레이

이영주 집사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주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시편 138 : 3) 아멘.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 입술을 통해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할 때 감사가 넘침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에 올 한해는 고백하는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감사한 일을 고백하려 합니다. 장미가 휴학을 하게 되어서 서울에 있는 방을 내놓았는데 오전에 내놓은 집이 오후에 집을 보러 온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하지만 결정을 못하고 그냥 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새로운 계약자가 나타나서 집이 나갔다는 연락이 주인으로부터 왔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행하셨기에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습니다.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면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당진순복음 성도님들!

올해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면서 기도를 통해 응답 되어지고 고백하는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다음주자 전수현 집사

<권찰 일기>

2020년 1월 25일 소현이의 일기

나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늘 의문이다.
예전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신앙생활에 흠이 되지 않는 것이라면 앞만 보고 달렸는데 지금은 아니다.
내 수준에 맞는(분수에 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가 직장에서 하는 행동들이 옳은 행동인지, 가정에서의 내 모습은 엄마로서, 한 남편의 아내로서 잘하고 있는지 늘 의문이다.

누가 나에게 '소현아 너 정말 잘 살고 있어' 라고 항상 용기를 주고 때론 '이럴 때는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떨까?' 라고 제안해주면 좋으련만..
사실 하루의 내 일과를 생각해보니 잠시나마 행동을 멈추고 깊이 있게 생각하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들이 나에게 감사할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할 때가 많다.
그냥 힘들다고 생각할 때가 많다.
시간에 쫓기고 업무에 치이고 설거지랑 집 정리는 정말.. 휴

나는 내 삶을 잘 살아가는 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고, 주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메시지를
알아차리기만 한다면 이 모든 고민이 해결될 것을...
나의 가장 큰 문제는 바쁨을 핑계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죄이다.
아침에 일어나면 짧게 기도한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잘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운전하기 전에 기도한다.
하나님 어린이집 안전하게 잘 데려다주고 이룸이 하율이 어린이집에서 하루를 잘 보내게 하시고 저도 직장에서 맡은 일 최선을 다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하지 못한다. 늘 나의 행동에 아쉬움이 남고 자책한다.
나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런 생각은 교만인가? 생각한다... 그러면 난 또 피곤해진다..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밖에 못할까.. 속상한 마음뿐이다...
그래도 예전과 달라진 것이 있다면.. 사람은 완벽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거다.
더 주님께 맡기자. 지금도 잘해 왔으니까.. 작년보다는 좋아진 모습으로 파이팅 해 보자.
이룸이 하율이가 더 컸고! 급여도 올랐고! 소현이도 한 살 더 먹었다.
나이에 맞는 행동으로 살자.
무겁지만 주님이 내 무거움을 맡아주실 것이다!!
내일도 힘내자 소현아 파이팅!!!

<편지>

안녕? 준희야~

순관이 형이야!!

이렇게 너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네 ㅎㅎ

요즈음 너희 집에 너를 데리러 자주 가는 것 같아.

다른 구역원은 전화도 받지 않지만 너는 전화라도 받아 주고 집에 찾아 갈 수 있어서 어찌나 감사 하던지.....

너희 집에 들어가면 너는 항상 자고 있었지.

토요일 축구 갈 때, 예배 드리러 갈 때 등의 상황에도 말이야.

물론 피곤하니 잠은 자는 것은 좋아.

하지만 교회에 가는 그 2일 만큼은 적당히 잤으면 좋겠어.

나는 학교에 가기 위해 일어나는 것 보다 더 쉽다고 생각해.

준희야~

너도 벌써 중학교 2학년이 되었다.

중학생이라는 책임감도 있을 것이고 그만큼의 의무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

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라도 더 어릴 때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학교생활 하며 어려울 때에는 기도로 이겨 나갔으면 좋겠어.

지금까지 말 한 것 꼭 지켜주기로 형하고 약속해 주면 좋겠어.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락도 절제하자.

형도 이겨 냈는데 너라고 못 하겠니?

너무 어렵다면 그럴 때마다 전화해.

형이 부족 한 것이 너무나도 많으니 너의 친구 영광이도 같이 챙기고 어려운 친구 있으면 같이 도와주며 신앙생활 열심히 하자.

내가 가장 아끼는 동생 준희에게

칭찬합시다!

요즘 교회 현관에 무슨 꽃이 활짝 피어있는지 아시나요?
또 교육관 창가에는 오밀조밀 다육이들이 꽃처럼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작은 화분 세 개로 시작되었던 다육이들이 한 무리가 되어 화원이 된 듯 하네요.
누구의 손길일까요? 너무 쉬운가요^^ 어느샌가 집사님이 되신 우리 교회 큰 일꾼 구옥순 집사님입니다. 교회의 대소사와 누구의 눈에도 잘 띄지 않는 교회 구석구석 참 잘 찾아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청소하고 용도에 맞게 맞춤형으로 변신시킵니다.
이건 달란트 맞죠? 교회와 함께한 시간이 거의 역사라고 표현해도 과하지 않은 듯 합니다.
목회자님들의 동역자로, 교회 성도들의 구역장으로, 이젠 어린 아가들의 할머니 소리까지 듣는 다방면의 집사님이네요. 곧 날이 따뜻해지고 봄바람이 살랑이는 날이면 교회 입구에서부터 성전 안팎으로 꽃 집사님의 활동 범위가 더 넓어지겠죠.
많은 성도들에게 봉사의 기회도 주실 듯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찾아 묵묵히 일하시는 집사님의 삶을 어떤 꽃에 비유할까요.
해만 따라가는 해바라기처럼 주님만 바라보는 주바라기 구옥순 집사님!
하나님의 시선도 집사님을 향하고 있음을 아시죠?
길가의 이름 모르는 풀꽃이 예쁜 이유는 항상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교회에 꽃집사님으로 계실 구옥순 집사님의 삶에 하나님의 꽃길 같은 축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수산나'가 고백합니다

1. 2021년 한 해 눈을 뜨고 건강하게 맞이 할 수 있음에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게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 같이 부족한 자 들어 쓰시려고 이 아침 톡을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돌립니다. 입술에는 ~ 감사하신 하나님. 에벤에셀 하나님 ~~~ 흥얼 되네요.

2. 샬롬 ^^~하루를 시작하는, 한 주를 시작하는 오늘 좋은(마른) 도로를 달려 출근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원재옥 권사

1. 오늘 하루 좀 정신없게 보내고 있지만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서로 같은 소통을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2. 치료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대상포진이 회복됨과 하루를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구역장 헌신예배 기도로 준비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영주 집사

1.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는지요~ ㅎ 전 지금 운동중입니다.

주님께서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성전에 올라 맡겨진 사역 감당할 수 있는 시간도 …

건강하게 운동할 수 있음에도~ 가족이 하루를 마치고 다시 한자리에 모여 담소를 나누며 식사할 수 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소소한 일상을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모두 저녁 맛나게 드시고 건강 조심하세요~ 사랑합니다 ❤□

2. 눈을 뜨고 출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웃고 함께 할 수 있는 동료들이 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함께 하는 우리 회원들이 있어서 감사하구요 ㅎㅎ

추위에 건강 조심하십시요 ^^

인성자 집사

1. 비록 코로나로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성전을 밟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적은 찬이지만 한 끼 식사도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주신 상품권 잘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할렐루야~~ 모처럼 봄날 같은 따뜻한(?) 포근한 날입니다 그동안 추웠는데 오늘은 가슴을 좀 펼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토요일 시은이가 다락에서 떨어져서 놀랬지만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 털끝만큼도 다치지 않았음을 오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잠깐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기억도 안나는 큰 충격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들의 삶 깊숙이 보호하심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영육의 강건함과 행악자들로 부터

보호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3. 감사로 한 달여 시간을 고백 할 수 있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풍성해지고 위로가 되고 시선이 달라지고 다른 분들의 감사에 또 감사해지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였음에 감사드립니다.

수산나 회원님들~~~ 감사드리고 사랑합니다 ♡♡♡♡♡

박기숙 집사

1. 오늘도 많이 춥네요. 회원님 가정 평안 하시죠? 어깨통증 때문에 잠시 휴직중입니다(3주) 병원치료 받고 많이 완케되었음에 감사하고 추운날씨에 쉴 수 있어 감사하고 교회가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수 있어 감사합니다 ~^~^

2. 오전에 마지막 물리치료 받고 사랑하는 집사님께 점심 접대받고 성전밟기 하고 집에 와 평안한 저녁 시간으로 가족과 함께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박순남 권사

1. 똑똑~ 오늘도 하루를 시작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강추위에도 견디게 하시고 코로나로부터 무탈하게 하시며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가정 가운데 웃게 하셔서 감사하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하고 특히 이번주는 인간극장 시청하면서 육신적으로 장애입지 않고 건강한 지체를 주셨음에 넘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엄청 춥다하는데 불평보다는 감사하며 건강 한 하루들 되세요^^

2. 주말은 건강과 즐거움으로 지내고들 계시죠? 저는 오늘 오랫만에 아미산

다녀왔습니다. 간만에 좋은 일기속에서~ 간만에 시원한 바람과~ 간만에 맑은 공기를 마시며~ 간만에 맘껏 호흡하고~ 간만에 땀 흘리며~ 산과 나무와 하늘을 바라보며 코로나속에서 모처럼 여유롭게 맘을 힐링하고 다녀올 수 있음에 너무 감사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최은주 집사

1. 경이로운 새날 새 아침에 감사.

주말이라 가족 모두 아침 식사함에 감사.

코로나와 눈 때문에 집에만 계신 엄마일 봐 드리고 말동무도 해 드릴수 있어서 감사.

나와의 약속 6,000보 걷기 해내서 감사 오늘도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2. 매일 운동한 덕분에 다리에 힘이 붙어 피곤함을 덜 느끼니 감사.

첨 만들어본 스콘. 나름 맛있다니 감사.

엄마가 주신 팥죽으로 점심 해결 감사.

생명의 말씀 매일 읽는 게 습관화 되어가니 감사.

추운 날씨에 따뜻한 집 감사. 오늘도 주신 모든 것 감사합니다.~~

한미경 성도

1. 할렐루야~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니 평안과 기쁨이 가득한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은 나의 힘도 의지도 아닌 오롯이 주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나의 모든 힘을 빼니 주님 힘이 더해졌고 나의 감정을 내려놓으니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졌습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무능한 손길을 사용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 영광 돌립니다.

2. 교회 냉장고 성에 잔뜩 끼여 청소를 해야겠구나 싶었습니다. 혼자 했으면 버거웠을 일인데 사랑하는 지체님들의 손길이 함께여서 즐거움과 감사함으로 감사에 감사의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하루의 일과였습니다.

구옥순 집사

1. 최고로 추운날~~ 모두 무탈하시죠? 오늘 오후에 인천사는 동서한테 전화가 왔어요. 소꼬리 택배 보냈다고요. 아마 월요일쯤에 들어갈거란 전화였어요. 지난번엔 굽도 보내줘서 잘 먹었거든요. 형님 생각하는 동서가 고맙고 감사하네요^^

2. 집사님댁 오르막 길부터 성전마당까지 깨끗하게 눈을 치워 주셔서 미끄럽지 않고 안전하게 오갈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숙 권찰

1. 가족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음에 감사~~

엄마 사랑해 라는 딸아이 고백에 감사~~

건강해져서 면접 보고 있음에 감사~~

조금씩 주님께 다가 가고자 노력함에 감사~~

작은 것에 행복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조명금 성도

이모저모 2021편

주일학교의 유초등부
줌예배 모습이에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이들에겐 처음이라
낯설지만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윤희자 전도사)

어릴적부터 그저 귀엽고
이뻐라 키웠던 우리 민우가
벌써 청년이 되어
취업을 하네요.
기숙사에 필요한 용품과
엄마의 밥이 최고라는
아들에게 집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송미정 집사)

갑작스럽게 눈이 왔어요.
늦은 시간이지만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한마음으로제설 작업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늘 함께하는 성도님들이 계시니
폭설이 와도
두려울게 하나도 없습니다. ^^
(윤희자 전도사)

요즘 코로나로 인해
여행이 힘들어
집에서 취미 활동으로
퍼즐맞추기와 칼림바 악기를
조금씩 배우기 시작했어요.
성탄과 연말로
아내가 비누 만들기에
바쁜 일정으로 저도
함께 도와주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박두식 권찰)

저희집 귀요미
막내 하율의
두 번째 생일을 맞은 기념으로
◁▫▫ 가족사진을 찍었습니다.
민형제의 상반된 표정이 압권입니다 ^^
(민이삭 컨찰)

어쩜 이리도 다를까요?
민장남은 예배 드리는 중 ^^
민차남은 먹방중 ~ 둘다 매력
만점 이랍니다 . (민이삭 컨찰)

(민이삭 컨찰) ▫▫▫▷

최애간식인 젤리 하나로
이렇게 해맑은 모습을 보이는
민형제, 덕분에 우리부부도
◁▫▫▫▫웃음꽃이 ^^
이런 맛에 육아 하나봅니다.
(민이삭 컨찰)

항상 식구들과만
지내던 생일인데
사랑하는 조카들과 동서가
이렇게 축하해 주었어요~^^
(김미진 집사)

새해복많이받아야지

2021년 헌아식

김다온 어린이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길
소망한다 다온아

엄마 아빠의 이쁜모습만 쏙 빼닮은 김다온

엄마얼굴, 아빠키 아멘!

틀린그림 찾기 2021년

* 1순위 - essay.323 -

* 지금 당신의 마음을 지배하는 1순위는 누구인가요?

<은혜로운 찬양>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CMR(Convenient Meal Replacement)

CMR(Convenient Meal Replacement)은 따로 데우거나 조리하지 않아도 바로 먹을 수 있는 식사대용 식품을 말한다. 시리얼바, 파우치에 들어 있는 죽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면서 간편한 식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간편 식품 시장이 더욱 더 성장할 전망이다.

뉴노멀(New Normal)

시대변화에 따라 새롭게 부상하는 표준으로, 경제 위기 이후 5~10년간의 세계경제를 특징짓는 현상. 과거에 대해 반성하고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시점에 등장한다. 저성장, 저소비, 높은 실업률, 고위험, 규제강화, 미 경제 역할 축소 등이 2008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세계경제에 나타날 뉴노멀로 논의되고 있다. 과거 사례로는 대공황 이후 정부역할 증대, 1980년대 이후 규제완화, IT기술 발달이 초래한 금융혁신 등이 대표적인 노멀의 변화로 꼽힌다.

구독경제(Subscription Economy)

소비자가 기업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매달 일정 금액을 지불하면 정기적으로 물건을 배송받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제 모델이다. 과거 신문이나 잡지에 한정되있던 서비스가 최근에는 고가의 자동차와 명품 의류 같은 물건뿐만 아니라 식음료 서비스까지 다양한 분야로 월정액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다. 구독경제는 무제한 스트리밍 영상을 제공하는 넷플릭스의 성공 이후 다른 분야로 확산되고 있다. 이 같은 '넷플릭스 모델'은 헬스클럽과 병원 등 건강·의료 영역까지 퍼지고 있다. 옷이나 화장품, 생활용품 분야에서는 '정기배송 모델'이 각광받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구독경제의 확산 현상을 '효용이론'으로 설명한다. 제한된 자원과 비용으로 최대한의 만족을 얻기 위한 노력의 결과라는 얘기다. 제러미 리프킨이 《소유의 종말》에서 예측했듯이 '소유'의 시대를 넘어 '접속'과 '이용'의 시대가 현실로 다가왔다.

무인경제(無人經濟)

인간의 노동력이 아닌 AI(인공지능), IoT(사물인터넷), 로봇 등이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에 차용된 시스템을 이른다. 최근 셀프 주유소, 무인 빨래방, 스마트 택배, 자동판매기, 코인 노래방 등 일상생활에서는 물론 운수업계(완전 자율주행차), 공장 생산 라인, 금융업계 등에서 활발한 무인화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일부 은행에서는 은행 직원을 통하지 않고도 화상통화나 손바닥 정맥 인식을 통해 본인 확인을 하고 계좌 개설과 상품 가입을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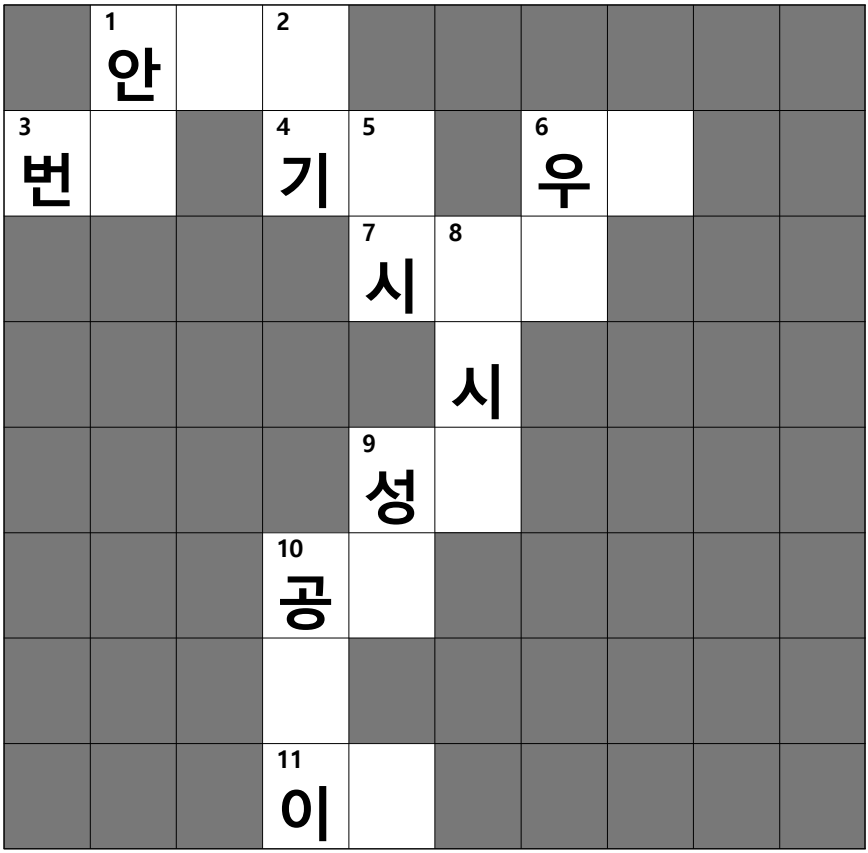
스마트팩토리(Smart Factory)

설계·개발, 제조 및 유통·물류 등 생산과정에 디지털 자동화 솔루션이 결합된 정보통신기술(ICT)을 적용하여 생산성, 품질,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지능형 생산공장을 의미한다. 공장 내 설비와 기계에 사물인터넷(IoT)를 설치하여 공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이를 분석해 목적된 바에 따라 스스로 제어할 수 있는 공장을 말한다. 최근 가볍고 유연한 생산체계가 요구됨에 따라, 제조업 혁신 방안으로서 부각되고 있다.

노더스트족(No-dust族)

부정을 뜻하는 노(no)와 먼지를 뜻하는 '더스트(dust)의 합성어로, 조금의 미세먼지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이는 연일 짙어지는 미세먼지 농도에 외출을 삼가거나 꺼리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노더스트족은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 외출하기 전에는 미세먼지 상황을 알기 위한 앱을 활용해 미리 체크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에는 외출을 삼간다. 만약 불가피하게 외출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일반 마스크가 아닌 방진 마스크나 코 마스크(콧속에 필터를 끼워 이중으로 미세먼지 차단)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 집과 같은 실내에서는 공기청정기는 물론 공기 정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식물을 꾸준히 가꾸면서 실내 공기를 정화한다. 특히 노더스트족은 미세먼지를 단순히 예방하고 제거하는 데서 나아가 미세먼지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는 생활 습관을 유지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들은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미세먼지 발생을 줄일 수 있는 생활 습관과 방법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미세먼지 관련 자료를 함께 수집하고 공부해 정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한다.

성 경 퍼 즐



가로

1. 십계명 중에는 일곱째 날에 000을 지키라는 계명이 있지?
3. 천둥과 함께 하늘에 번쩍 내리 치는 것. 모세가 시내산에서 기도할 때도 이게 번쩍번쩍 쳤단다.
4. 밥 먹기 전에, 잠들기 전에 늘 00하는 습관을 기르자.

도자기공

한 전도사가 도자기 공장 지대에 사는 한 사람을 방문하였다. 그 사람은 젊었을 때는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이었다. 전도사는 그 집에 도착하여 유리 상자 속에 든 두 개의 좋은 꽃병을 보고 감탄하여 말했다.

“야! 참 멋있군요. 아주 귀한 것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얼마면 파시겠습니까?”

주인은 고개를 휘저으며 전도사에게 말했다.

“이 세상 돈을 다 준다 해도 저 두 개의 꽃병은 절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술주정뱅이에다 노름꾼이었지요. 말하자면 마귀에게 영혼을 묻겨 놓고 다녔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의 권유로 교회의 집회에 참석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쓰레기 더미에서 흙 한무더기를 발견하에 되었습니다. 누군가가 쓸 데가 없어서 버린 것이었지요. 나는 그걸 집에 가져와 반죽을 하고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그 날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도 나를 가지고 똑같은 일을 하실 수 있을 거야!’ 그때부터 저는 제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내맡기고 하나님께서 저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길 바랐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쓰레기장의 흙 무덤 같은 나를 아름다운 꽃병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유머

부부가 외출을 했는데, 앞서가던 남편이 무단 횡단을 했다.

깜작 놀란 트럭 운전사가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다.

"이 바보 멍청이, 얼간 머저리, 쪼다야! 길 좀 똑바로 건너"

이 말을 들은 아내가 남편에게 물었다.

"당신 아는 사람이에요?"

"아~ 아니."

"그런데 당신에 대해 어쩜 그렇게 잘 알아요?“

시므이(Shimei)

[다윗왕이 바후림에 이르매 거기서 사울의 집 족속 하나가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저가 나오면서 연하여 저주하고 또 다윗과 다윗왕의 모든 신복을 향하여 돌을 던지니 그때에 모든 백성과 용사들은 다윗왕의 좌우에 있었더라](삼하16:5-6)

시므이는 다윗이 사울의 뒤를 이어 왕이 된 것을 심히 못 마땅히 여긴 나머지 다윗왕이 압살롬에게 쫓겨 예루살렘을 떠나 바후림에 이르렀을 때 그를 저주하고 돌을 던졌다. 이 광경을 목격한 다윗의 이복 자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그의 목을 베려는 것을 다윗은 한사코 만류했다. 그 후 압살롬이 죽고 그의 군대가 진멸되자 그는 요단 나루터에서 승리한 다윗왕에게 용서를 빌었다. 원래 시므이는 압살롬이 승리하고 다윗이 패하게 될 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저주하고 돌을 던져 모욕을 주었다. 그러나 막상 압살롬이 패하고 다윗이 승리하게 되자 후환이 두려워 왕이 요단을 건너기 전에 용서를 빌었던 것이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컨대 나로 건너가서 저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가로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저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네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자가 누구겠느냐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시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삼하16:9-11)

훗날 솔로몬은 부왕 다윗의 처형명령을 받고도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그의 주거지를 예루살렘에 국한시킨 후 행동반경을 제한하는 것으로 끝냈다. 그러나 3년후 시므이가 왕명을 어기고 예루살렘을 이탈하자 솔로몬은 즉시 그를 처형하고 말았다.

자신의 이권을 위하여 신앙의 주체성을 저버리고 적당하게 행동하는 기회주의자, 그는 진실을 떠나서 실리를 따져 행동하기 때문에 언젠가 한번은 화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시므이가 주는 교훈이다.

<재미로 보는 한국사~>

위화도 회군

1388년에 이성계와 정도전 일파가 권력을 장악한 사건이다. 당시 새로 들어선 중국의 명나라는 과거 원나라가 고려를 지배하면서 누렸던 여러 이권을 요구하며 말썽을 일으켰다. 특히 철령위 설치를 통보하며 영토까지 요구하자 최영의 주도로 요동 정벌이 추진된다. 이성계는 작은 나라가 큰 나라를 치는 것, 여름에 군사를 출병하는 것, 명과 싸우는 사이에 왜구가 침략할 위험,
장마철에 전쟁할 때 생기는 문제 등을 이유로 들면서 출병에 반대한다(이를 4불가론이라 한다). 하지만 우왕은 최영을 팔도 도통사로 삼아 요동 출병을 결정하는데 공교롭게도 이성계가 5만여 명의 원정군을 이끌게 된다. 압록강 앞에 위화도라는 작은 섬이 있는데 보통 요동 출병에 앞서 병사와 군마를 정비하기 위해 머물렀다, 이성계는 이곳에서 조민수 등과 합세하여 군을 돌렸고 개경으로 쳐들어와 최영 일파를 무력화한 후 군권을 장악한다. 최영은 유배된 후 처형됐고 우왕이 폐위된 후 그의 아들인 창왕도 폐위된다. 또 정도전 등의 혁명파가 국정을 주도하는 가운데 과전법이라는 토지 개혁이 실시되고, 마지막 국왕인 공양왕마저 몰아내려는 시도가 점쳐지자 정몽주 등이 이를 막으려 하지만 끝내 실패한다. 결국 1392년에 조선 왕조가 창건되며, 475년간 지속된 고려 시대는 막을 내린다.

6. 십계명 중에는 00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도 있단다.
7. 모세가 3일 밤낮을 기도하고 십계명을 받아 온 산.
9.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책, 우리가 지금 여행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지.
10. 부모님을 00하라는 계명도 잊지 말아야지!
11. 네 00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도 있단다.

세로

1. 수증기 같은 00가 가득한 말에는 앞이 잘 안 보이지? 00가 찐 것처럼 마음이 답답할 때 교회에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단다.
2. 하루를 정리할 때는 00를 쓰면 좋단다. 그리고 그날 잘못한 일은 바로 회개 기도를 하고 잠자리에 들도록 하렴.
5. 시골의 반대말은?
6. 비가 올 때 쓰는 것.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든든한 00이 되어 주신단다.
8. 위가 아파서 병원에 가면 작은 카메라가 달린 000으로 위의 어디가 아플 때 기도로 나을 수 있단다.
9. 가로 세로가 모두 답이 같네! 하나님의 말씀을 적은 책!
10. 모래를 가지고 놀면 모래 놀이, 성경을 가지고 놀면 성경 놀이, 공을 가지고 놀면?

<지난호 정답>

만				
나	이			
	십			
	세	포		
		도		
	메	주		
	추			
	라			
	기	분		
		홍	해	
			병	사

자살을 기도하던 30대 가장 두 명이 로또에 당첨되고, 이를 둘러싼 미담이 미국방송 CNN, 일본, 영국... 등과 인터넷을 통해 뒤늦게 알려지면서 전 세계 국민들을 감동시키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한강대교 북단 다리 아치 위에서 시작됐다.

성북구 장위동에 사는 김씨(38)는 이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살을 하기 위해 한강대교 다리 아치 위에 올라갔다. 마침 자살을 기도하던 박씨(38세, 영등포구 대방동)를 만났다.

그러나 주민 신고를 받고 119구조대와 용산경찰서가 긴급 출동해 1시간 만에 자살소동은 종료됐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지난해 8월 건설업을 하는 친구 원씨(37)의 보증을 섰다가 3억원의 빚을 떠안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박씨는 두 달 전 교통 사고로 아내를 잃는 슬픔을 당했지만 죽은 아내가 가해자로 몰리자 법정 싸움에 지쳐 자살을 결심하고 한강을 찾은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경찰은 다시는 이 같은 일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은 후, 두 사람을 훈방 조치했다. 서로의 처지를 알게 된 두 사람은 이날 늦게까지 술을 마셨고, 그후로도 자주 만나 술을 마시며, 절친한 친구 사이로 발전했다.

그러다 그달 7일 김씨와 박씨는 당첨되면 반씩 나눌 것을 약속하고, 각각 1만원씩 내 강남대로 한 판매점에서 로또복권을 샀다. 그 중 한장이 2등에 당첨돼 3억 원을 받게 된 김씨와 박씨. 천성이 착한 두 사람은 그 돈으로 가정을 수습하라며 서로에게 건네 줬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자, 우선 김씨가 당첨된 로또 용지를 갖게 됐다.

그날 밤 김씨는 자신의 마음을 적은 편지 속에 당첨된 로또 용지를 넣어 대방동 박씨 집 편지함에 넣고 왔다.

♡ 박씨와 김씨가 주고 받은 편지 내용 일부
박씨 "이보게 친구, 제발 내 마음을 받아주게나! 나야 아이 하나고 다시 돈 벌어 빚 갚고 살아가면 되지만 자네는 상황이 나보다 좋지 않아. 아이들 엄마 그렇게 떠난 것도 큰 슬픔인데 엄마 없이 아이들하고 어찌 살려고 그러나. 우선 이 돈으로 가정을 추스르고 내일을 모색해 보게나. 자네 자꾸 이러면 다시는 자네 안 볼 걸세. 명심하게."
김씨 "친구 간에 무슨 소린가. 간 사람이야 어쩔 수 없지만 산 사람은 어떻게든 살아야지. 우선 이 돈으로 자네 빚부터 갚게나. 나는 아직까지는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지 않은가? 우선 자네 빚부터 갚고 살길을 찾아봐야지. 빚 때문에 고민하다가 또 한강 다리에 올라갈텐가? 그렇게 자네를 잃기 싫네. 제발 이러지 말게나. 어찌 그리 내 마음을 몰라 주는가."
다음날 이 사실을 안 박씨 또한 친구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정성스레 편지를 써 장위동 김씨 집 편지함에 로또 용지와 함께 편지를 놓아뒀다.
친구를 배려하는 '감동의 다툼'은 이후에도 서너 차례 반복됐다.
그런데 이날도 거하게 술이 취한 김씨가 박씨의 편지함에 넣는다는 것이 엉뚱한 집 우편함에 편지를 넣고 온 것이 또 다른 사건의 발단이었다.
박씨 빌라 바로 위층에 사는 진선행씨(28세, 여)가 뜻하지 않은 횡재를 한 것. 그러나 편지 속의 애틋한 사연을 알게 된 진씨는 당첨된 로또용지와 함께 편지를 모 신문사에 제보했고, 감동의 미담은 인터넷을 통해 삽시간에 번졌다.
미국의 CNN 방송은 "한국 사람의 배려와 인정은 전 세계 최고다" 라는 타이틀로 이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영국의 BBC방송도 "자살 기도자 2명이 로또 당첨으로 절친한 사이 되다"라고 보도했고, 일본의 요미우리 신문 인터넷판은 "두 사람의 배려, 끝은 어디인가?" 라는 제목으로 이 소식을 톱기사로 올렸다.
자살을 위해 한강을 찾은 두 사람, 이렇게 친구가 됐다. 한편 국민뱅크 측은 당첨금 3억원과는 별도로 김씨의 보증빚 3억원을 대신 갚아주는 한편 억울하게 교통사고 가해자로 몰린 박씨 가족에게 국내 최고의 변호인단을 무료로 선임하는 등 대대적인 법적자문을 통해 박씨 가족의 억울함을 풀어줬다.

국민뱅크 대외협력팀 유선한 팀장은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연찮게 타인으로 만난 두 사람의 우정이 눈물겹고 또한 자신이 이득을 취하지 않고 제보를 해준 양심 바른 진씨에게도 무척 감사 드린다"며 이번 조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좋은 나라 운동 본부' 김진실 대표는 "로또가 당첨되면 가족끼리도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까지 서로를 배려하는 모습에 눈물이 났다"며 말을 잇지 못했다.

한편 이들의 감동 실화를 접한 영화제작사 한 관계자는 "이 감동을 그냥 가슴속에서만 간직하기엔 너무 아쉬워 영화로 만들 계획" 이라며...

감동 사연의 실제 주인공 두 명을 섭외해 주연배우로 출연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 이라고 밝혔다. 우리의 옛 의좋은 형제의 동화 같은 현대판 실화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직은 희망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세상이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슴에 품고 힘들고 짜증난 일들은 모두 내려놓으시고,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퍼옴>

◉ 이달의 교회소식

1. 헌신예배 / 학생회 - 2월 14일 오후5시
   기관장 - 2월 21일 오후5시
   청년회 - 2월 28일 오후5시

◉ 공지사항

1. 2월 생활실천표어 / 믿음과 지혜를 구하라
2. 2월 신앙서적 /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필립 얀시' 저
3. 코로나19 생활개인방역 / 마스크착용, 손소독, 거리두기
4. 설날 / 명절 이동 자제하기

◉ 이달의 교우소식

1. 이신애권찰 / 화장품 강사1급 자격증 취득
2. 헌물 / 무명 - 성전성단 무선청소기

상담전화 받습니다.

이영주사모:010-7747-5278, 윤희자전도사:010-3066-0544

문서위원회

위원장: 김미진 집사
위 원: 박기숙 집사
이종희 집사
정현미 집사
전수현 집사
조은희 권찰
최하나 청년

DJFGC

✝ 31785 충남 당진시 백암로 132-37
☎ 041) 352-5278, 356-5278, 357-9547(fax)
교회모바일웹 http://www.djfgc.org/m/index.htm